

## 도시 내 이민자 자영업의 시공간적 역동성 - 시카고 거주 한국인 이민자를 사례로 -

정수열\* · 임석희\*\*

**요약** : 이민자 집단에 있어 자영업은 생존과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민자들의 주거 집중이 이민자 자영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왔다. 하지만 최근 이민자들의 거주지가 분산되어 집거권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점차 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들의 주거 분산에 따른 자영업에 대한 집거권이 행하는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시카고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Public Use Microdata Sample(PUMS) 통계자료를 통해 한인 자영업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점검하였다. 주거 분산에 대한 한인 자영업자들의 반응과 대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을 '영향이 있었다'는 그룹과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이 고객 확보, 노동력수급, 자재수급, 사업정보획득, 그리고 사업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고는 것이 밝혀졌다. 두 그룹이 민족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와 활용하는 방법에서 상이하여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이민자 기업가주의의 발흥에 있어 주거 집중의 중요성은 해당 자영업의 민족적 네트워크의 의존도와 활용방법에 달려있다는 점을 밝혔다.

**주요어** : 이민자 자영업, 주거 분산, 소수민족 집거권 경제론, 민족 네트워크

### 1. 서론

이민자들의 주거 집중에 따라 형성된 집거권은 이민자 자영업 성장의 발판이 됨으로써 기업가주의를 고양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돕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정수열, 2010). 이는 이민자 집거권이 신규 이민자들의 현지 적응을 돕는다는 점과 더불어 또 다른 집거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통적으로 집거권 형성은 거주지 분화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으로 도시

내에 불균등하고 분포해 있는 교육이나 경제 기회에 대한 이민자 집단의 접근을 저해하는 문제라는 주장과 대치되어 논란이 되었다(Chung, 2009a; 2009b).

하지만 최근에 나타난 변화는 이민자 자영업에 대한 집거권의 역할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도시들에서 이민자들이 도심의 전통적인 집거권을 벗어나 분산하면서 특정 교외도시에 재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정수열, 2008). 이에 본 연구는 이민자의 주거 분산에 따른 자영업에 대한 집거권의 역할 변화를 시카고 대도시권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민자 자영업의 발생 및 성장 과정 그리고 특히 집거권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문헌을 리뷰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시카고 대도시권 거주 한국인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고 주거 분산에 대한 한국인 자영업자의 반응과 대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다. 모든 논의는 이민자 자영업 성장에 있어 집거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수민족 집거권 경제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2. 이민자 자영업의 발생 및 성장

이민자 집단에 있어 자영업은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민자에 의해 소유·운영되는 기업은 사업자가 피고용되었을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동족 이민자를 고용함으로써 이민자 집단 전체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 오는데 주재국 문화와 언어 익숙하지 않거나 현지인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민자 기업에 의해 고용된 동족 이민자들은 장래에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Glazer and Moynihan, 1963; Portes and Zhou, 1999). 이와 같이 이민자 자영업이 이민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측면 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민자 집단은 어떠한 이유로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민자 자영업의 성장을 위한 집거권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단초가 된다. 이민자 자영업의 발생 요인을 사회, 민족, 개인 등의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Zhou, 2004).

### 1) 사회 층위: 노동시장론, 민족 시장 형성

이중노동시장론에 따르면 소수민족 이민자가 자영업에 집중하는 원인은 노동시장에서 인종·민족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차별이다(Mata & Pendakur, 1999).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그 사람의 인종 혹은 민족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소수민족 이민자는 구직과정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다수민족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의 토지소유와 숙련공 수련을 금지하는 입법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대인을 주로 행상인이나 점원, 사채업자로 남게 하였다(Bonachich, 1973). 또한 1882년 중국인 배제 법률(Chinese Exclusion Act)은 중국인 이민자로 하여금 경제 활동 범위를 자신의 집단거주지의 요식업이나 세탁업과 같은 특정 지역, 특정 직종으로 제한하였다(Wong, 1988). 유럽사리 일반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여 낮은 직급에 머물게 되는 것은 물론 근로 의욕이 꺾여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경기침체나 영업실적부진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소수민족 노동자는 일차적인 퇴출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노동시장에서 소수민족 이민자는 구직, 승진, 퇴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차별대우 받으며 특히 다수민족 내국인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중국에는 주류경제에서 피고용인으로서 경제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자영업으로 내몬다. 이중노동시장론은 소수민족 이민자가 자영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언어적 수 없는 강요된 선택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표적인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인종 차별적 법률은 폐지되었고 가시적인 차별은 줄어든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소수민족 이민자가 자영업에 집중하게 되는 사회적 힘으로 새로이 지목되는 것이 '민족 시장의 형성과 성장'과 '정부의 소유 허용(access

to ownership)’이다(Aldrich and Waldinger, 1990). 민족 시장의 성장은 민족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으며 심지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소수민족 이민자는 토속 음식과 같은 민족 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다수민족 내국인들도 이국적이면서 희소한 민족 상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수요를 창출해 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민족 이민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의 성공은 이민자 집단의 규모가 크고 얼마나 커지느냐와 내국인 수요를 자극해 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 시장의 존재는 이민자 자영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민족 시장과 더불어 이민자가 기업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거나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있어야 한다.

## 2) 집단 층위: 민족 자본

앞서 살펴본 노동시장에서 인종 차별적 관행, 민족 상품에 대한 수요, 정부의 소유 허용이 사회적 수준에서 이민자들이 자영업에 집중하는 요인들이라면, 이민자 집단적 수준에서의 요인들도 있다. 이 요인들은 이민자 국적별로 자영업 비율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집단 수준에서 지목되는 첫 번째 요인은 ‘자영업에 대한 민족적 선호’이다. 이민자가 소속된 민족이 자영업을 선호하고 그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전통을 가진 경우 해당 이민자들은 이민 후에도 보다 쉽게 자영업을 선택한다. 이는 모국에 있을 때부터 자영업을 하였던 사람은 물론이고 모국에서 자영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영업을 선택하게끔 유도한다. 예로, 유럽의 유대인은 자기 방어 수단으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주를 하여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 나가 자영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Goldscheider, 1996).

두 번째 요인은 민족적 연대의식(ethnic solidarity)이다. 이민자들은 이민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내국인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특히 출생국, 가치관, 관습,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는 동족에 대해 보다 강한 친밀감을 느끼면서 민족적 연대의식이 형성된다. 이러한 민족적 연대의식은 동족 이민자가 창업과 운영 자본을 대주는 대부자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경영기술과 조언을 제공하는 동업자로, 노동을 제공해 주는 피고용인으로 이민자 자영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사례로, Light(1972)는 제2차 세계대전 전 중국인과 일본인 미국 이민자들의 경제를 연구하면서 민족적 연대의식이 이민자 공동체에서 대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동업자나 임금노동자를 선택할 때 동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요인은 구속력이 있는 신뢰(enforceable trust)이다. 이민자 민족 공동체는 동족 집단 구성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성문화된 혹은 암묵적인 규범을 가진다. 나아가 그 규범을 어기는 구성원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행위나 일탈행위를 막는다. 이로써 개별 이민자 자영업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 중국인 집단거주지의 경우 ‘회(會, hui)’라 칭해지는 상부상조의 민간협동체인 계의 운영자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리더가 있다. 이 리더의 보증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가 비공식 사회연결망의 일부분으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단순히 민족 공동체에서 사업을 금지하는 것일지라도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Mung, 1996).

네 번째 요인으로 이민자로서 갖는 방랑자적 경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후 귀국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 특히 정치적 탄압과 경제 불황, 자연재해 등과 같은 강한 배출요인 때문에 이민을 한 경우 이러한 경

향은 강하다. 이러한 방랑자적 경향은 이민국에서 적응과 동화를 지체시켜 정착을 가로막음은 물론 경제활동에 있어서 일반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것 보다는 소자본만을 투자하고 단기간에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소규모 상공업에 종사하게 한다.

요약하면 민족적 연대의식은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지킬 것을 강제하여 동족 자영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며 특히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방랑자적 경향을 가질 때 자영업에 보다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개인 층위: 인적자본론

이민자 개인의 자영업 종사 여부는 그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즉 앞서 언급한 사회적 그리고 민족 층위의 요인들이 아무리 강하게 작동한다 하여 이민자 개개인이 자영업에 바로 종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자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자영업 종사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국에서 형성된 개인적 성향과 형태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이민자 자영업과 관련하여 개인적 수준에서 요인으로는 자영업과 관련된 경험, 이민 당시의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들, 이민 후에 쌓은 인적 자본이 있다. 자영업과 관련된 경험으로 본국에서 자영업에 직접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가족, 친지, 친구 중에 자영업자가 있어 간접 경험을 한 경우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또한 이민 당시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과 결혼여부를 들 수 있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지 일정 정도 지난 연령일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법적 지위, 자본, 교육수준, 기술을 들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왔고 자금력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업무 관련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자영업을 할 확률이 높다. 또한 이민 후에 현지 언

어와 관습을 습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진다.

Min(1988)은 한국계와 필리핀계 미국 이민자들을 비교하면서 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학력을 가지고 이민해 왔으나 자영업 비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계 이민자는 본국에서 중산층이었음에도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노동시장에서 전문직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반면 필리핀계 이민자는 영어 구사 능력이 좋고 미국식 교육을 받은 덕에 이주 전부터 일자리를 약속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영어 구사 능력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으로 임금 노동자가 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아 자영업자가 된 경우를 보여준다. 이렇듯 개인적 수준에서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 4) 요약과 쟁점

이상으로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하는 요인들을 사회, 집단, 개인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Portes와 Rumbaut(1990)의 분석틀인 출구 맥락(contexts of exit)과 입구 맥락(contexts of reception)을 빌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구 맥락은 소수민족 이민자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본국을 떠나 이민 수용국으로 들어 왔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민자들의 본국을 떠날 때 이주 동기와 소유한 인적자본과 재정적·물질적 자원 그리고 이민국에 도착했을 때 법적 지위가 자영업 종사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반면에 이민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주목하는 입구 맥락으로 이민국에서 기존에 설립된 민족 공동체의 존재 여부와 결속력, 이민국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정책, 그리고 수용국 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이 이민자에게 강요된 선택이냐 아니면 능동적 선택이냐이다. 강요되었다고 보는 입장은 소수민족 이민자에 대한 일반노동시장에서 차별적 관행들에 근거를 두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관행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강요된 선택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능동적 선택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Rajjiman과 Tienda(2000)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이민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는 이민 1세대 자신에게는 자영업이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선택이었지만 1.5세대나 2세대는 일반노동시장에 진출하기를 위해 자영업이 능동적 선택이 아님을 의미한다. 반면 히스패닉계 자영업자는 자신의 후손들도 사업을 이어 받기를 위해 자영업이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능동적 선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영업 종사가 강요된 것이냐 능동적으로 선택된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민족별로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민족적 연대 의식이 이민자 자영업의 운용에 있어 득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득이 된다는 주장에 따르면 이민자 자영업은 노동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동일 민족 노동자를 선호한다. 하지만 Gold(1994)의 연구에 따르면 리틀 사이공에 있는 베트남계 이민자 소유 기업들은 동족 이민자보다는 멕시코계나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비 절약이 민족적 연대감보다 우선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득이 된다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동족 자영업자들 간 정보 공유와 같은 협력이 지적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현미(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한정된 시장을 동족 자영업자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일 경우 민족적 연대감이 전체적인 이민자 자영업 운영과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민족적 연대 의식이 이민자 자영업

의 운용에 항상 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세 번째 쟁점은 이민자 개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징이 자영업 종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민자가 젊고 현지 언어와 관습에 익숙할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영업이 그 특성상 일정 수준의 노하우를 요구하기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할 수 있고 현재 언어와 관습을 완전히 습득한다면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에 종사하길 꺼릴 수 있다. 따라서 연령과 언어 및 관습의 습득여부와 자영업 종사율 간 관계는 비선형이다.

## 5) 지리학적 접근과 연구 방법

이민자 자영업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에서 주요 쟁점은 이민자들의 주거지 집중이 이민자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소수민족 집거권 경제론(enclave economy framework)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서로 이웃하여 거주하는 경향이 있고 토속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가져 민족 시장(ethnic market)을 형성한다. 이민자 자영업은 이러한 시장을 바탕으로 발생하며 아울러 동족 유대감을 기반으로 동족 이민자를 고용해 노동력 수급을 원활히 하며 다른 동족 자영업자와 사업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하면서 성장한다(Wilson and Portes, 1980; Portes and Bach, 1985; Portes and Manning, 1986). 요약하면 소수민족의 주거 집중은 민족 시장을 형성하고 동족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이민자 집단이 자영업을 위한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도와 이민자 자영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sup>1)</sup>

하지만 미국의 경우 최근 이민자들의 도시 내 거주지가 분산되고 있다(정수열, 2008). 이는 기존에 이민자 집거권이 가지고 있던 역할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이민자를 사례로 이민자 주거 패턴의 변화가 이민자 자영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시카고를 선택한 이유는 도시 생태학의 모델이 되었던 도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선택된 이유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자영업 비율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2000년에 그 비율이 21.1%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 9.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같은 연도에 백인은 11.0%, 흑인은 4.5%, 히스패닉은 6.7%, 아시아인은 9.8%의 자영업자 비율을 보였다.

자료는 미국 인구센서스 조사국의 Public Use Microdata Samples(PUMS)를 Minnesota Population Center의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를 통해 얻어 활용하였다. PUMS는 지역 단위별로 집계된 여타 센서스 통계자료와 달리 개인(personal)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거주지 분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반응과 대응에 관한 자료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얻었다.

### 3. 시카고 한국인 자영업자

본 장에서는 이민자 집단의 거주지 분산에 따른

집거권의 이민자 자영업에 대한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자 시카고 대도시권 거주 한국인 자영업자를 분석한다. 표 1은 임금노동자와 비교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미국 통계청의 PUMS를 통해 살펴보았다<sup>2)</sup>. 먼저 시카고 대도시권의 한국인 자영업자 비율은 1990년 26.5%로 전미 한국인 자영업자 비율인 23.4%를 상회하였으나 2000년에는 19.0%로 감소하여 전미 비율인 21.1%를 밑돌았다.

2000년 자영업자의 연령 중위값은 50세로 임금노동자에 비해 높고 미국 체류 연수도 19.6년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과 비교하면 임금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낮아진 반면 자영업자의 연령은 높아졌다. 체류 연수 또한 임금노동자는 4년 정도 증가한데 비해 자영업자는 9.2년 증가하여 그 폭이 컸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연령과 체류 연수의 증가는 특정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 온 동시발생집단이 자영업자가 주로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초반에 30대의 나이에 이민 온 한국인들이 시카고에서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 연구 지역의 경우 동시발생집단 효과(cohort effect)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시카고 거주 한국인 자영업자의 인구학적 사회적 특성 변화

	1990년		2000년	
	자영업자 (n=4,440)	임금노동자 (n=12,306)	자영업자 (n=3,923)	임금노동자 (n=16,711)
연령(중위값)	43	38	50	35
미국 체류 연수(평균값)	10.4	10.3	19.6	14.2
언어 고립도*	48.9%	35.3%	27.0%	27.6%
언어 구사 능력**	64.2%	73.6%	66.2%	77.2%
전문대 이상 학력	58.4%	50.1%	60.7%	58.7%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48.2%	44.1%	53.0%	54.9%
개인 소득(달러, 중위값)	24,000	17,000	32,800	27,000
가구 소득(달러, 중위값)	51,400	41,500	80,000	64,000
주택 자가 소유	72.3%	54.9%	76.3%	56.2%

\* 가정 내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소통하는 가구의 비율

\*\*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하거나 잘 구사하는 한국인의 비율

출처: PUMS 5% Sample, 1990 and 2000(가중치를 부여함).

표 2. 시카고 한국인 자영업자의 산업 분류

	1990 (n=4,440)	2000 (n=3,923)
소매업	36.5%	18.6%
의류 및 액세서리	6.4%	3.5%
요식업	5.1%	2.6%
컴퓨터, 라디오 및 TV	0.0%	3.8%
금융, 보험, 부동산업	1.7%	3.0%
전문 서비스업	5.1%	13.0%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27.1%	38.2%

출처: PUMS 5% Sample, 1990과 2000(가중치 부여함).

사회적 특성으로 언어 수준을 먼저 살펴보면 2000년 자영업자는 가정 내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비율이 27.0%이며 영어를 아주 잘(very well) 구사하거나 잘(well) 구사하는 비율이 66.2%였다. 교육 수준으로는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자영업자의 비율이 60.7%로 높은 수준이다. 임금노동자와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1990년의 수치와 비교하여도 언어와 교

육 수준 양자 모두에서 향상되었으나 그 폭은 작다.

경제적 특성을 소득과 자가 주택 소유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2000년에 자영업자의 개인 소득은 32,800달러, 가구 소득은 80,000달러로 임금노동자보다 높으며 1990년에 비해 25% 정도 증가하였다. 자가 주택 소유 여부 또한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에 비해 높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연령이 높아 생애 주기에서 후반부에 있으며 경제활동을 더 오래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시카고 거주 한국인 자영업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본다. 공식적인 경제활동의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업체의 법인화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 27.3%에서 2000년 34.3%로 증가하였다. 2000년 비(非)히스패닉 백인 자영업의 법인화 비율인 45.4%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주류 경제의 일부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무보수 가족노동 활용도도 1990년대를 거치면서 3.2%에서 2.3%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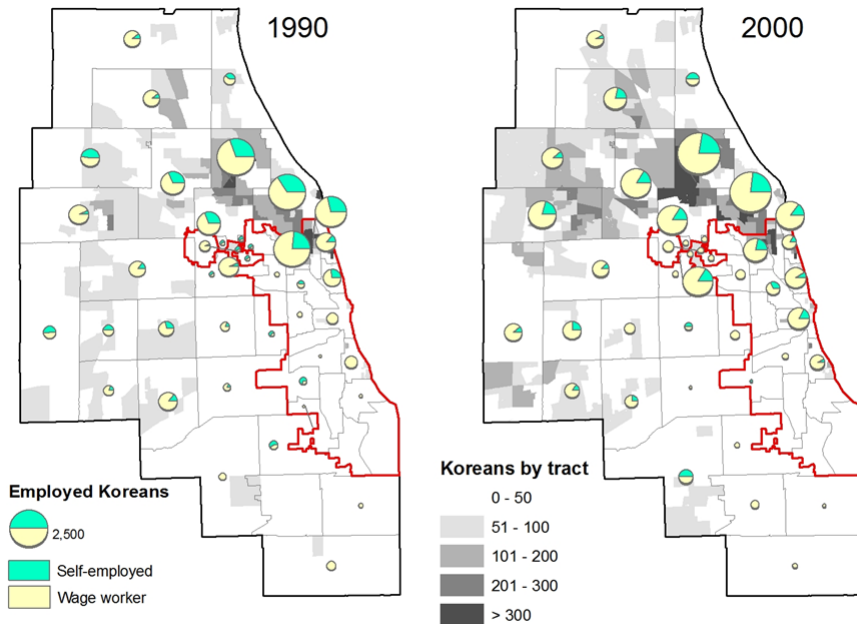


그림 1. 시카고 거주 한국인 경제활동 인구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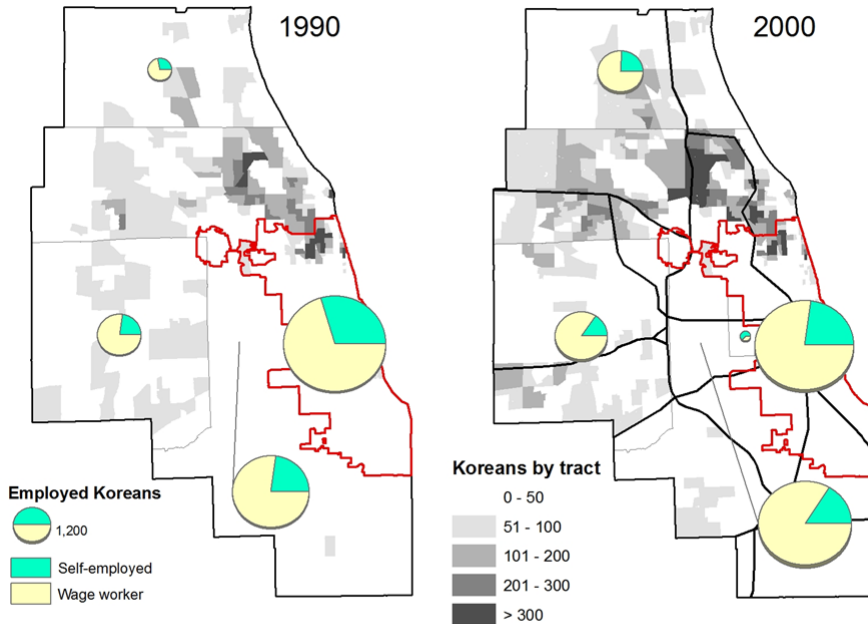


그림 2. 시카고 거주 한국인 경제활동 인구의 직장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백인의 0.2%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시카고 한국인 자영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세탁업의 비중이 2000년에 38.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난 10년간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결과이다. 반면 소매업의 비중은 1990년 36.5%에서 18.6%로 감소하였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금융, 보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고차 서비스업도 1990년간 증가하였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한국인 자영업의 시카고 대도시권에서 거주지 분포와 그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우선 2000년 한국인 전체의 거주지를 센서스 트랙 별로 살펴보면 시카고 시(City of Chicago)의 북부와 시의 북쪽 경계 인접지역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어 1990년에 비교해 교외화하고 있으면서도 재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집대거주지인 코리아타운 인근 Lincolnwood, Wilmette, Skokie, Evanston 등에 거주하

는 비율은 낮아지고 시 외곽에 위치한 교외도시인 Northbrook, Glenview, Morton Grove, Niles, Buffalo Grove 등의 거주 비율이 높아졌다<sup>3)</sup>. 그리고 PUMS에서 입지를 표시하는 Public Use Microdata Area(PUMA)별로 경제활동인구를 표현한 파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1990년대를 거쳐 한국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의 거주지가 전반적인 거주 패턴 변화에 상응하여 교외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자영업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직장의 일치 여부이다. 그림 2는 시카고에서 경제활동을 한국인의 사업장·직장 분포를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로 나누어 살펴 본 것이다. 시카고 시와 그 인접 외곽지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1990년대를 걸쳐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자영업 비율이 7.5% 가량 감소한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시카고 대도시권의 북부 지역에서 경제활동 인구와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



표 3. 시카고 거주 한국인 자영업자의 통근 수단 및 시간

	한국인 자영업자		백인 자영업자	
	1990 (n=4,440)	2000 (n=3,923)	1990 (n=189,189)	2000 (n=187,794)
직주일치 / 도보	5.7%	8.4%	19.5%	21.9%
버스 / 지하철 / 택시	4.2%	0.9%	7.5%	7.7%
자가용	88.8%	89.5%	70.9%	67.9%
15분 미만	28.7%	18.8%	41.4%	38.5%
16 - 30분	35.3%	36.8%	34.6%	33.9%
31 - 45분	28.7%	25.4%	15.1%	16.2%
46 - 60분	7.3%	13.1%	6.4%	7.9%
61분 이상	0.0%	5.9%	2.5%	3.5%
기타 혹은 무응답	1.4%	1.2%	2.1%	2.6%

Source: PUMS 5% Sample, 1990과 2000(가중치 부여함).

러나 자영업자의 사업장 또한 교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직장의 위치정보가 집계된 지리적 단위인 Workplace PUMA가 거주지 정보가 집계된 PUMA보다 상당히 커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통근 수단과 시간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표 3). 직주가 일치하는 한국인 자영업자는 2000년에 8.4%로 백인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낮아 거주지와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1990년대를 거치면서 통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주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시간 이상 장시간 통근하는 경우도 13.1%에 달했다.

이상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코리아타운과 같은 전통적인 집거권에서 주거와 사업을 함께 해결하던 자영업자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외로 이전하면서 통근 거리가 늘어난 경우이다. 둘째, 전통적인 집거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피해 교외로 이전함과 동시에 같은 이유로 이전한 동족 고객들을 상대하기 위해 사업장을 해당 교외에 개설한 경우이다. 셋째, 전통적인 집거권에서 벗어나 거주지를

이전함과 동시에 타 민족 고객 특히 다수 민족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그들의 집단거주지에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카고 거주 한국인의 전반적인 거주지 분산이 동족 자영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매카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거주지 분산이 자신의 사업에 미친 영향의 유무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

표 4는 거주지 분산이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와 그들의 특성을 보여 준다. 업종은 식료품 소매업, 요식업, 비디오 대여업, 차량 정비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해 보이지만 주요 고객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고용노동에 있는 경우 동일민족인 한국인을 고용하였으며 전적으로 한국인 이외의 민족만을 고용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사업 정보를 얻는 원천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자재를 얻는 구매 활동에 있어서 식료품점, 식당, 비디오 대여점은 민족적 색채가 강한 상품을 취급하기에 다른 한국인 사업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금 운영하는 사업장 이전의 경험으로

표 4. 거주지 분산의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

	주고객	고용노동자	사업정보	구매경로	한국에서 자영업경험	미국에서 자영업경험
식료품점 1	한국인	한국인, 멕시코인	비민족적 네트워크	한국인	없다	있다
식료품점 2	한국인	멕시코인, 한국인	비민족적 네트워크	한국인	없다	없다
식당	한국인	한국인, 멕시코인	한국인	한국인	없다	있다
비디오 대여점	한국인	없음	한국인	한국인	없다	없다
차량 정비소	한국인	멕시코인, 한국인	무응답	비민족적 네트워크	있다	있다
학원	한국인	한국인, 백인	비민족적 네트워크	비민족적 네트워크	없다	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거의 없었으며 미국에서의 경험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요약하면 시카고 대도시권에서 한국인의 거주지 분산이 자신의 자영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한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동족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민족적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표 5는 한국인이 거주지 분산이 자신의 사업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보여 준다. 업종 측면에서 세탁업, 휴대폰 대리점과 같은 개인 서비스업과 옷, 화장품, 주류를 취급하는 소매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자영업자는 한국인이 아닌 백인이나 다른 소수민족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어 앞서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와 대별되었다. 또한 고용 노동자도 한국인이 아닌 다른 민족 구성원이 경우가 많았다. 다만 사업정보나 물품 구매 경로는 동족인 한국인이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현업

이전에 자영업 경험은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정리하면 시카고 대도시권에서 한국인의 거주지 분산이 자신의 자영업에 별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한국인 이외의 다른 민족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또한 다른 민족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비민족적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보면 거주지 분산이 동족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고 작음은 해당 자영업자가 사업 운용에 있어 민족적 유대감에 바탕한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에 달려 있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민족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방법은 다양하였다. 식료품점, 식당, 자동차 정비소와 같은 자영업은 고객 확보를 위해, 식당과 학원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식료품점, 식당, 세탁업은 사업 정보를 얻기 위해, 세탁업과 옷가게는 구매활동을 위해 민족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

표 5. 거주지분산의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

	주고객	고용노동자	사업정보	구매 경로	한국에서 자영업경험	미국에서 자영업경험
세탁업 1	백인	백인	한국인	한국인	없다	있다
세탁업 2	백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없다	있다
세탁업 3	백인	없다	한국인	한국인	없다	없다
옷가게	흑인, 히스패닉	멕시코인	한국인	한국인	있다	없다
화장품가게	흑인, 히스패닉	멕시코인	한국인	한국인	없다	없다
주류판매 1	흑인, 히스패닉	백인, 멕시코인	한국인	비민족적 네트워크	없다	있다
주류판매 2	흑인, 히스패닉	백인, 멕시코인	한국인	비민족적 네트워크	없다	없다
휴대폰 대리점	흑인, 히스패닉	한국인, 멕시코인	비민족적 네트워크	비민족적 네트워크	없다	있다

났다. 그리고 이민자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인 동족 집거권 경제의 영향은 확실히 감소하였으나 이민자 자영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정도로 동족 집거권 경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4. 요약 및 결론

이민자 자영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의 생존과 지위상승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이민자들의 주거 집중은 이들이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된다. 하지만 최근 이민자들의 주거 분산은 이민자 집거권 내에서 성장한 이민자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거주지 분산에 따른 이민자 자영업에 대한 집거권의 역할 변화를 시카고 대도시권의 한국인을 사례로 밝히고자 했다.

먼저 통계자료인 Public Use Microdata Sample (PUMS)를 이용하여 한국인 자영업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동족 임금노동자에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자영업자의 연령과 체류 연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 온 동시 발생 집단이 자영업에 주로 종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특성으로 이들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으나 영어 구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영어 구사 능력은 점차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특성으로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에 비해 소득수준과 자가 주택 소유율이 높아 경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자영업이 보다 나은 소득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연령이 높고 생애 주기 후반부에 있으며 경제활동을 더 오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인 자영업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법인

회율이 증가하는 등 주류 경제에 진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종 면에서는 소매업 비중을 감소하는 반면 세탁업과 같은 특정 개인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자영업자의 거주지 분포는 임금노동자와 같이 시카고 시 북부와 시의 북쪽 경제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1990년대를 거치면서 보다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특정 교외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분포 또한 거주지 분포와 유사하며 교외화하고 있었으나 자료 집계 단위의 규모가 커서 사업장과 주거지의 공간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통근 수단과 통근 시간을 통해 볼 때 자영업자들의 장거리 통근이 늘어나고 있어 직주분리가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한국인의 전반적인 거주지 분산이 동족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자영업자들 간에 거주지 분산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한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동족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민족적 색채가 강한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반면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세탁업과 같이 다른 인종·민족 집단을 고객으로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자재나 노동력 수급급과 사업정보획득에서는 민족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거주지 분산에 따라 이민자 자영업의 발전에 있어 동족 집거권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전통적인 동족 집거권은 주거, 경제, 여가활동의 주요무대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상당부분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영업별로 민족 네트워크의 의존도와 활용방법이 다르기에 따라 동족 집거권의 중요성도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소수민족 집거권 경제론은 집거권이 모

든 이민자 자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지 이민자 자영업 내부에서는 집거권에 의존하는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에 이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이다.

## 주

- 1) 정수열(2010)은 미국 대도시권에서 거주지 분화의 정도와 한국인의 자영업 종사 비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집계치를 이용하여 도시들을 비교하여 그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한 도시를 선정하여 내부를 살펴보아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 2) 임석희(2009)의 분석과 비교하여 샘플 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수열(20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pp.511-525.

정수열, 2010, 이민자의 주거 집중이 자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지리학회지 44(1), pp.25-34.

임석희, 2009, 미국 시카고 대도시권의 한국인 자영업 특성과 성격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3(2), pp.221-239.

조현미, 2007, 재일한인 중소규모 자영업자의 직업과 민족 간의 유대관계 - 오사카 이쿠노구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pp.601-605.

Aldrich, H.E. and R. Waldinger, 1990,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Annul Review of Sociology* 16, pp.111-135.

Bonacich, E.,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5), pp.583-594.

Chung, S-Y., 2009a, Neighborhood and Segregation in the

Urban Theor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2(2), pp.103-118.

Chung, S-Y., 2009b,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f Racial/Ethnic Segregation in U.S. Cities,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3(4), pp.497-514.

Gold, S.J., 1994, "Chinese-Vietnamese Entrepreneurs in California" In *The New Asian Immigration in Los Angeles and Global Restructuring*. Ed. P. Ong, E. Bonacich and L. Cheng.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pp.196-226.

Goldscheider, C., 1986, *Jewish Continuity and Change: Emerging Patterns in America*.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Glazer, N. and D.P. Moynihan, 1963, *Beyond the Melting Pot*. Cambridge, MA: MIT Press.

Light, I. 1972, *Ethnic Enterprise in America: Business and Welfare among Chinese, Japanese, and Black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ta, R. and R. Pendakur, 1999, Immigration, Labor Force Integration, and the Pursuit of Self-Employment,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3(2), pp.378-402.

Min, P.G., 1988, *Ethnic Bzusiness Enterprise: Korean Small Business in Atlanta*. Staten Island, NY: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Mung, E.M., 1996, "Ethnic Economy and Diaspora." Paper presented at the ISSCO conference on the Ethnic Chinese, History and Perspectives: Ethnic Chinese at the Turn of the Centuries. November 18-22, Xiamen University, China.

Portes, A. and Bach, R. 1985, *Latin Journ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ortes, A. and R.G. Rumbaut, 1990,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First Edi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ortes, A. and M. Zhou, 1999,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Progress in the Nine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mmigrants and African Americans, In *Immigration and Opportunity: Race, Ethnicity, and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Ed. F. D.

- Bean and S. Bell-Ros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143-171.
- Portes, A. and R. Manning, 1986, 'The Immigrant Enclave: Theory and Empirical Examples', in S. Olzak and J. Nagel (eds.)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 Raijiman, R. and M. Tienda, 2000 "Immigrants" Pathway to Business Ownership: A Comparative Ethnic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4(3), pp.682-706.
- Wilson, K. and A. Portes, 1980, 'Immigrant Enclaves: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of Cubans in Miami',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2), pp.295-319.
- Wong, B.P., 1988, *Patronage, Brokerage, Entrepreneurship and the Chinese Community of New York*. New York: AMS Press.
- Zhou, M., 2004, Revisiting Ethnic Entrepreneurship: Convergencies, Controversies, and Conceptual Advanceme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pp.1040-1074.
- 교신: 임석회,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53-850-4152, 이메일: shyim@daegu.ac.kr
- Correspondence: Seokhoi Yim,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Tel: +82-53-850-4152, e-mail: shyim@daegu.ac.kr

최초투고일 2012년 8월 15일

최종접수일 2012년 8월 30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5, No.3, 2012(376-389)*

## **Spatio-Temporal Dynamics of Immigrant Self-employment: A Cas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Chicago**

Su-Yeul Chung\* · Seokhoi Yim\*\*

**Abstract** : Ethnic entrepreneurship, an important means by which immigrants improve economic status, is widely believed to be facilitated by their residential concentration, i.e. ethnic enclaves. However, the recent immigrants' residential dispersion and re-clustering in some selected well-to-do suburbs portend changes in the role of ethnic enclave as a nest of immigrant entrepreneurship.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the residential dispersal on ethnic entrepreneurship with a case study of Korean small businessmen in Chicago, Illinois PMSA. The research utilizes the Public Use Microdata Sample (PUMS) to know the overall changes in Korean entrepreneurship through 1990s and conducts a survey to understand reactions and surviving strategies of Korean enclave businessmen to the residential shifts. Relevant to those analyses is the enclave-economy hypothesis which argues benefit from spatial clustering of co-ethnic entrepreneurs by yielding more business opportunities and higher returns.

**Key Words** : immigrant self-employment, residential dispersal, enclave economy framework, ethnic networks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aegu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

\*\*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